입안에서 만개하는 '꽃 와인'

metro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구스타브 로렌츠 게부르츠트라미너 리저브, 돈나푸가타 루메라, 산다라 샤도네이 사케, 알바로 팔라시오스 페탈로스,

황홀한 와인의 향에 취한 사이 눈 앞에는 어느새 만발한 장미와 온갖 꽃들이 펼쳐진다. 와인을 소재로 한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 유명한 장면이다. 소믈리에 수습생 미야비는 시즈쿠가 화려하게 디캔팅한 DRC리쉬부르를 맛보자 꽃밭 위에 서있게 된다. 백가지 꽃향기를 모아놨다던 그 와인이다.

꽃밭까지는 아니라도 봄꽃 한웅큼은 입안 가득 느껴볼 수 있다. 화사한 꽃향이 생생해 따스한 봄날 꽃놀이에 꼭 들고가야 하는 그런 와인이다.

투명한 황금빛의 '구스타브 로렌츠 게부르츠트라미너 리저브'는 생생하고 화사한 꽃 향이 매우 도드라진다. 장미꽃잎, 열대의 화려한 꽃향과 함께 완숙한 살구, 파인애플, 신선한 고수와 같은 허브 향도 폭발적으로 피어난다. 오크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휘핑 크림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선하고 우아해 다양한 음식과 어울린다. 매콤한 생선요리는 물론 중식, 태국요리와도 먹을 수 있다.

'돈나푸가타 루메라'는 투명한 장밋빛의 로제와인이다. 아카시아 꽃향이 생생한 가운데 석류, 건포도, 산딸기와 같은 과실향도 같이 느껴볼 수 있다. 이 와인은 신선한 향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에서 압착한 후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통에서 숙성된다. 산도와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뤄 식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와 함께 점심, 저녁 식사 때도 즐길 수 있다. '루메라'는 시칠리아의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랑 받는 여인을 뜻한다. 그 모습을 표현한 초상화가 라벨에 그려져 있다.

벚꽃향이 그득한 '산다라 샤도네이 사케'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와인이다. 샤도네이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에 일본산 사케와 벚꽃향을 더했다. 지중해와 동양을 한 병에 품은 이 와인에서는 바나나와 사과, 파인애플의 풍미가 느껴진다. 매콤한 떡볶이나 곱창 볶음, 김치볶음밥 등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리며, 만두 튀김, 맥 앤 치즈 등과 같은 느끼한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달콤해 디저트로도 좋다.

'알바로 팔라시오스 페탈로스'는 스페인 서부 비에르조(Bierzo)의 토착 품종인 멘시아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와 꽃 다발 향이 풍부하다. 수령 40~90년의 나무 뿌리가 땅 속 깊이 미네랄이 풍부한 편암층까지 뻗어간 덕에 깨진 돌과 같은 향도 경험해볼 수 있다. 완숙한 과실 느낌이 우아하게 표현된다. 와이너리의 극심한경사와 긴 수령 탓에 대량 양산이 불가능해 애호가들에게는 보물로 꼽힌다.

'케이머스 코넌드럼 화이트'는 뮈스카, 비오니에, 세미용, 소비뇽 블랑, 샤도네이 등 5가지 화이트품종을 섞었다. 각 품종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동시에 조화롭다. 뮈스카는 꽃과 열대과일 향을, 비오니에와 세미용은 스파이스한 성격과 꽃의 느낌을 더한다. 소비뇽 블랑은 레몬류의 맛과 맑고 청량한 느낌으로, 샤도네이는 사과나 배의 풍미와 크리미한 느낌으로 와인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시킨 후 프렌치·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해 신선함과 생동감이 살아있다. 샐러드, 파스타, 피자 등과 어울린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NARA CELLAR

'반값' GS25 요금제, 10만 가입자 돌파

1만원대 요금제 '가성비'로 입소문

편의점 GS25는 이동 통신 서비스 상품인 GS25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GS25요금제는 U+알뜰모바일 미디어로그(알뜰폰 사업자: MVNO)와 GS25가 제휴해 선보인 알뜰 이동 통신 요금제 서비스 상품이다. 1~2만원대의 저렴한 월 이용료에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며, 의무 사용 약정 기간이 없어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

GS25요금제의 가격대는 최저 1만2100원(3GB/150분)부터 최대 2만6200원(10GB/180분)까지 6종으로 운영된다. 이동 통신 3사들이 주력으로 운영하는 통신 상품 요금이 월 4만원~9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GS25요금제는 반값 이하 수준이다.

GS25요금제 6종 중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상위 3개 상품은 ▲5GB·200분(1만4280원)요금제 ▲15GB·100분(2만5300원)요금제 ▲3GB·150분(1만2100원) 요금제 순이다. 특히 5GB·200분 (1만4280원)요금제의 경우 각종 SNS 상에서 '최고의 가성비'라는 평을 받으며 3월 한달간 GS25 요금제 가입자 중 49%가 선택한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다.

/김민서 기자

VW베라왕, '편안한 썸머 아이템' 론칭

CJ ENM 오쇼핑부문

CJ ENM 오쇼핑부문의 대표 패션 브랜드 VW베라왕이 13일 10시 20분부터 2시간 20분 동안 여름 캡슐 컬렉션을 론칭한다. '스테이케이션'을 콘셉트로 해 여가를 즐기는데 어울릴 얇은 니트 세트부터 편안함을 강조한 신발 등 토탈 코디네이션을 제안한다.

오쇼핑부문은 지난 2일 선보인 'VW베라왕 모던 웨지 부티'을 선론칭하며 여름 패션의 출발을 알렸다. 에스빠드류 웨지와 부티 스타일을 접목시킨 VW베라왕의 여름 시그니처 슈즈 아이템으로, 론칭 방송에서 8억 어치를 판매하며 호조를 보였다. 이를 필두로 오는 13일에 본격적으로 VW베라왕의 썸머 캡슐 컬렉션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실용적인 의류 세트와 편안하고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 있는 잡화 아이템 등 총 6가지 상품을 소개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엄마, 나도 車 뽑았어" … '키즈 저격' 호캉스 인기

키즈 러브 x 띠띠베드 패키지 /글래드호텔앤드리조트

'자동차, 캐릭터, 비밀공간….'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급호텔 객실이 탈바꿈하고 있다. 호텔업계는 다양한 콘셉트의 객실 및 패키지로 가족 고객을 공략하고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특급 호텔들은 내달 황금 연휴를 겨냥한 가족형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키즈 전용 객실이 포함된 상품의 인기가 높다. 패키지 하나만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에서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오 마이 카 패키지'는 이미 일부 지점에서 특정 일자 예약이 마감됐다. 이 같은 인기에 따라 오는 5월 4일부터는 전국 12개 지점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 패키지는 아이들이 꿈꾸는 '드림카 여행'을 콘셉트로 한다. 기존 객실을 키즈 전용 객실로 리뉴얼한 '마이 카 키즈 전용 객실'이 제공된다.

패키지 명칭처럼 객실에서는 자동차 침대 '띠띠카베드'를 만나볼 수 있다. '띠띠카베드'는 단순히 침대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시동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주행 소리, 경적음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옵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날 연휴 겨냥 프로그램 잇따라
헬로키티 등 인기캐릭터로 객실 단장
아동·부모 만족하는 '가족형 패키지'

헬로키티 캐릭터 룸과 2019 헬로키티 리미티드 에디션 인형. /롯데호텔제주

글래드호텔앤드리조트도 '띠띠'와 함께 '키즈 러브 X 띠띠베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글래드 여의도는 띠띠베드가 설치된 객실을 기본으로 한 패키지를 혜택에 따라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옵션 1은 객실에 쁘띠첼 구미 젤리 2개를 포함한다. 옵션 2는 옵션 1의 혜택에 ▲성인 조식 2인 ▲캐리 키즈카페 입장권 1매(성인 2인, 어린이 1인용) ▲키즈 배스로브 1개 ▲아가방 마스크 2개로 구성됐다.

특히, 글래드 측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4월 30일~5월 5일까지 한정 상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옵션 2의 혜택 중 조식 2인 대신 아토팜 버블 바스 1개와 함께 연박 시 1박 당 2만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은 '꿈꾸는 키즈룸 패키지'를 운영한다. 객실은 총 4가지 타입으로, 객실 일부 공간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층 침대를 활용해 1층은 어린이들의 '비밀 놀이공간'으로, 2층은 침실로 꾸몄다. 인형, 장난감, 도서 등이 함께 마련됐다.

'가족 지향적 호텔'로 잘 알려진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은 가족 고객을 위한 '패밀리 오퍼'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키즈룸을 이용할 경우, 패밀리 오퍼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객실을 이용하는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2명까지 객실 추가 인원 비용이 면제되며, 부모와 함께 조식을 이용 시 어린이 조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롯데호텔제주는 헬로키티와 손을 잡았다. 오는 5월 31일까지 선보이는 '웰컴 백, 헬로키티' 패키지' 2종이다.

헬로키티 캐릭터 룸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꾸준히 가족 고객에게 사랑 받아 왔다. 지난해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객실점유율이 90%에 다다른 바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호텔 측은 침대와 객실 데코레이션, 소품을 새롭게 구성하고, 캐릭터 룸이 위치한 본관 4층 엘리베이터와 복도도 한층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꾸몄다.

/김민서 기자 min0812@